



김제시 2024년 4·H연합회 연시총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4·H연합회(회장 김병우)가 연시총회를 열고 2024년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시는 23일 4·H연합회가 김제시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50여명의 회원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연합회장 이임 및 취임식과 2024년 주요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에서는 2023년 회장으로 활동한 김성일(공덕면)씨가 이임하고 2024년 김병우(금구면)씨가 취임했다.

2024년 4·H연합회는 김병우회장을 중심으로 김우석씨와 문병천씨가 부회장, 송태우씨와 이명근씨가 감사로 강효은 씨가 사무국장을 맡아 1년동안 4·H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김병우 신임회장은 “4·H연합회는 다양한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김제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의지를 다졌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되어가는 요즘에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적응하고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적십자 전북, 취약계층 쿠달 후원 여성용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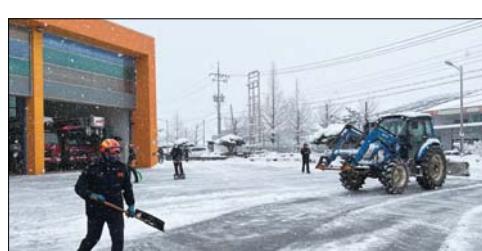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23일 도내 보건 취약계층을 위해 여성위생용품 404세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은 쿠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시민부인 착한 벗들, 새빛 장애인 지원지원센터, 삼성휴먼빌에 소속된 다문화기정 및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취약계층 이동 404명에게 전달되었다.

쿠달 노현준 대표이사는 “매달 구매해야 하는 위생용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여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민족 소외이웃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달은 사회적 책임과 의미를 다하는 ‘굿’, ‘굿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및 보호아동센터 등에 다양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소방서 의용소방대, 제설작업 실시 출동로 확보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3일 오전 9시 기준 21cm에 달하는 눈이 정읍시 전역에 내려 정읍소방서 북면 의용소방대가 발 벗고 나서 제설작업을 펼쳤다고 전했다.

북면 남성의용소방대는 밤사이 많은 눈으로 대설경보가 내려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해 소방서 청사 주변 시내 결빙 구간 등 출동로 확보를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정읍소방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계면, 익명의 기부천사 100만원 기탁

장수군 장계면사무소는 지난 22일 오전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기탁받았다.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익명의 기부자는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성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장계면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선행을 하고 계신 익명의 기부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려 장계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한파 대비 집중 건강관리 챙길 것”

남원시보건소, 현장 밀착형 방문 건강관리 총력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대비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에 총력을 다하며 주목받고 있다.

방문 건강관리에는 보건소, 읍·면 보건지도, 진료소 인력 50명이 등록된 건강 취약계층 6,539가구 7,554여명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물품(넥워마) 1,145개를 배부했다.

특히 한파특보 발효 시 재난도우미로서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방문 또는 전화로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 및 겨울철 한랭질환과 한파 대비 행동요령,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 등을 교육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한파 대비 건강취약계층에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정 온도(18~20°C) 및 습도(40~60%) 유지 △외출 전 날씨 정보 확인 및 이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방한용품 사용 등이 있다.

또한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으로,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및 뇌출증 등)이 많이 발생하기



에 △급여 및 절주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꾸준한 치료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고 호흡기 질환과 낙상사고에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최민자 치매인성과장은 “앞으로도 한파에 대비해 집중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살피고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보건의료원, 올해 국가무료건강검진 본격 시행

순창군이 주민들의 건강검진 편의와 암 조기발견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약을 맺고 연중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올해 검진대상은 20세 이상 짹수년도 출생자이며 일반건강검진은 문진·신체계측,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영상사진 활용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가유권집권 대상은 △위암 40세 이상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지궁경부암 2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 △간암 40세 이상이며, 일정 조건 충족 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가능 여부 확인은 의료지원과 건강증진팀(063-650-5313, 5327)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검진을 원하는 주민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검진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과 각 읍면 보건소 이동검진을 이용하면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유권집권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1~2월 중 검진 일정 및 장소는 1월 24일 동계보건지소, 1월 25일 팔당보건지소, 1월 26일 풍산보건지소, 1월 29일 금과보건지소, 1월 30일 구름보건지소, 1월 31일 유등보건지소, 2월 1일 인계보건지소, 2월 2일 쌍치보건지소, 2월 5일 복성보건지소, 2월 6일 보건의료원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군산대 자율전공학부, ‘양정무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가 2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명사와 함께하는 진로특강 양정무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양정무 회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를 주제로 고조선 역사박물관 설립 및 역사서평, 자신의 산넘과 가치관, 진솔한 사회활동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양정무 회장님의 생생한 경험담과 가치관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 용기있는 삶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정무 회장은 현재 전라북도지역협의회 회장, 랭스필드(주)회장, 회문밸리 회장직 맡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역사비로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설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부이다.

의과계, 연예계, 학계 등 재학생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다양한 분야 명사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관련분야 생생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재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아동을 아끼는 교육지도사’, ‘스마트교통엔지니어’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으로 신설하였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재학생들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연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수파이프·아주산업 서재석 대표, 부안에 고향사랑 기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유)수파이프와 (유)아주산업을 운영하는 서재석 대표가 최근 부안군에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및 우수, 오수 파이프를 생산하는 (유)수파이프와 (유)아주산업의 서재석 대표는 기업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직원 복지 증진과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시하며, 부안 지역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인이다.

서재석 대표는 “부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일도 미룸도 힘 넣는 대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발전을 위해 마음을 전달해 주신 서재석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기금 사업을 통해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넘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디딤돌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포시에서 열린 제18회 KTFI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출전한 육상팀 김용수 선수는 26:4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전주 노회, 예수병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예수병원(신충식 병원장)은 전주노회에서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백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전주노회 서화평(삼물교회 담임목사)노회장은 전주노회 임원진과 함께 이날 예수병원을 방문해 신충식 병원장에게 발전기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서화평 노회장은 “예수병원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펼쳐온 의료 서비스를 통해 신교와 불교에 입장 선 모ose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주 지역사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환자 최우선의 진료 시스템으로 예수병원을 운영하며 새롭게 변모하는 예수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모금에 동참했다.”며 발전기금을 전했다.

전주노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예수병원을 찾아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해 변함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제18대 통장연합회장 김금비 통장 취임식 개최

전주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견의할 새 통장연합회장이 취임했다.

전주시는 제18대 전주시 통장연합회장으로 데진동 김금비(58) 통장이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김 통장연합회장의 취임식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취임사, 새 임원소개 등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김금비 신임 전주시 통장연합회장 취임사를 통해 “행정 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 뿌리내려진 통장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시의 큰 주춧돌이 되는 통장연합회가 구심점이 되어 시정 전반에서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장수 계북면 생활개선회, 사랑의 쌀국수 기탁

장수군 계북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영임)가 최근 계북면에 쌀국수 30박스를 기탁했다.

계북면 생활개선회는 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여성 조직으로 헌력있는 농촌사회 형성과 회원 능력배양 및 정보교화를 위한 교육 행사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생활가꾸기 및 친환경농업 보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탁을 이어가며 관내 이웃돕기와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된 현물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계북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영임 회장은 “고물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소외된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계북면장은 “생활개선회의 기탁 덕분에 계북면 주민들이 따뜻한 은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후원해주신 현물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감사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